

진도 쌍계사 삼존좌상 보물 '가시화'

진도군은 문화재청이 최근 17세기 제작된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진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21호)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경내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 3구와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으로 구성됐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구성된 삼존(三尊) 형식이다.

삼존좌상은 조각승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9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완성한 작품으로, 건장한 신체 표현과 통통하게 살아 오른 어린이 같은 얼굴 등에서 회장 스님 조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회장 스님은 부산 범어사 목조삼존불상(보물 1526호)과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1660호), 함양 법안사 목조불상(보물 1691호) 등을 제작했다.

불상은 제작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몇 해 전까지민해도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었으나 지난 2015년 대웅전 해체복원 당시 불상을 임시법당에 옮기는 과정에서 복장을 조사하면서 그 배설을 벗었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17세기 불상 연구 가치 커
"전남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상 연구 기준 작품"



진도군은 문화재청이 17세기 제작된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진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21호)을 최근 보물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에서는 강희 4년(1665년)에 제작됐다는 조연문이 발견됐다. 발원문에는 봉안한 장소 시주자, 불상을 조성한 장인, 당시 쌍계사에

주석한 스님들을 총 망라해 기록돼 있다.

또 불경서적과 후령통 등이 다수 발견돼 당시 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복장 유물은 제작시기와 목적 등 연대가 확인되고 조각양식이 뛰어나며, 보존상태가 양호한데다 복장 유물이 일괄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 1660년대에 제작된 불교 조각상 가운데 협시보살상과 복장발원문이 일괄로 잘 갖춰지고 발원문에 수록조연문이 등장해 수록재의 의미로 불보살상이 조성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삼존의 보존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복장 유물 역시 안치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아 불상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지방에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대해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남 장흥군 물축제 개막을 앞두고 장흥군 용산면에서 장흥읍 순지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도로를 26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물축제 개막 앞두고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개통

총 5.7km 구간 2~4차로로 확장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장흥군 물축제 개막을 앞두고 장흥군 용산면에서 장흥읍 순지리에 이르는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도로를 26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총 5.7km 구간을 2~4차로로 확장하는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12년 착공했으며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길이 780m의 자율재 터널과 교량 2개소, 교차로 8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장흥읍에서 용산면에 이르는 기존 국도 23호선 구간은 산악지역으로 급경사와 급커브 등이 심하고

겨울철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운전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해발 371m 자율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신설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가 약 2km, 운행시간은 5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사고위험이 높고 불편했던 국도 23호선 용산-장흥 구간이 마무리돼 안전한 도로로 탄생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근에서 진행중인 장흥-유치, 대덕-용산, 강진-미량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기성 기자

여수시, 시민 500명 청원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내달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열린 시민청원 창구 운영

여수시는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으면 탄담 등을 통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맥락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첫 운영 한다.

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여수시민

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 불편 사항, 고충 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 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절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등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 민원으로 넘겨 처리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 인형극 공연

무안군은 지난 24일 남악북합주 민선터와 25일 송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4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 집 아동 881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다.

무안군 보건소가 주관한 이 공연은 아이들에게 친근한 소재인 인형극을 통해 흡연·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조기교육은 물론 가정 내 금연·금주전도사를 양성하고자 마

련됐다. 특히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인형 탈을 쓴 캐릭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율동, 미술 등이 함께 곁들여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이들은 관람 도중 "담배 나빠요!", "술도 안돼요!"라고 외치는 등 인형극에 호응을 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폭염 장기화' 피해 예방 총력

수산양식·보건 의료 등 9개 분야 추진 상황 집중 점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26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복지 2개 분야, 관광 1개 분야, 수산양식 2개 분야, 농업축산 2개 분야, 보건의료 2개 분야 등 총 9개 분야의 추진 상

황을 집중 점검하고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12개 읍면 무더위 쉼터 운영과 취약 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도내 시·군과 합동 점검 실시,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수산 양식분야는 고수온, 적조에 대비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각 어가에 통보하였으며, 양식

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두리 차광막 2,200개를 지원하고

특히, 관내 해역 59개 지점 해양정보(수온, 용존산소량 등)를 관측해 어민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농업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 홍보와 함께 무더위 휴식 시간제(오후 2시~5시)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살수차를 동원한 물 뿌리기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